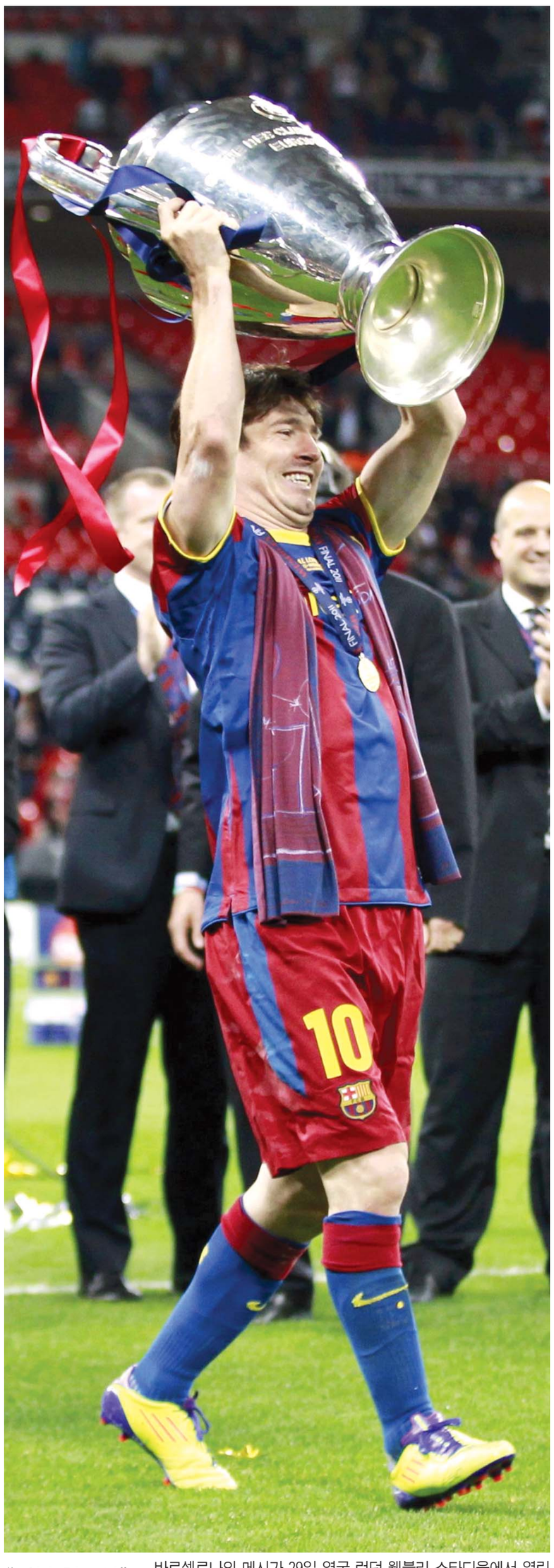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기분 최고야"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29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유아니티드를 3-1로 꺾은 뒤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 바르샤 최고 메시

맨유 3-1로 꺾고 UEFA 챔스리그 우승 … 박지성 빛바랜 풀타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챔피언 FC바르셀로나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를 꺾고 '꿈의 무대'로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29일 오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0-2011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전반 27분 페드로 로드리게스의 선제골과 후반 9분 리오넬 메시의 결승골, 후반 24분 다비드 비야의 쐐기골로 맨유를 3-1로 완파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맨유를 결승에서 꺾었던 2008-009시즌에 이어 2년 만에 유럽 프로축구 최강자의 자리를 되찾으며 통산 네 번째로 우승컵인 '빅 이어(Big Ear)'를 들어 올렸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세 시즌 연속이자 통산 21번째 정상에 올랐던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2관왕의 기쁨을 누렸다.

박지성은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뛰었지만,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바르셀로나의 우승을 지켜봐야 했다.

스페인과 잉글랜드 리그 챔피언 간 맞대결이었지만, 무게 중심은 바르셀로나 쪽에 있었다. 볼 점유율만 보더라도 63대 37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지배했다. 또 바르셀로나가 유효슈팅 12개를 포함해 19개의 슈팅을 날리는 동안 맨유는 단 4개(유효슈팅 1개)의 슈팅에 그쳤다.

전반 초반에 잠시 맨유가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으로 바르셀로나를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면서 간결한 패스 플레이로 볼 소유를 늘려가는 바르셀로나식 축구가 살아나면서 맨유가 밀리기 시작했다.

결국 전반 27분에 균형이 무너졌다. 사비 에르난데스의 패스를 받은 페드로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슛으로 맨유 골문을 열어 바르셀로나가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전반에는 맨유의 반격이 만만찮았다. 전반 34분 오른쪽 측면에서 라이언 긱스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루니가 골 지역 오른쪽에서 강력한 오른발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을 1-1로 마친 바르셀로나는 후반 9분 만에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불리는 메시의 왼발슛이 터지면서 다시 앞서 나갔다.

알렉스 퍼거슨 맨유 감독은 다시 리드를 빼앗기자 후반 24분 파비우를 빼고 윙어인 루이스 나니를 투입해 만회를 노렸다. 하지만 나니가 들어가자마자 비야에게 쐐기골을 얻어맞아 추격 의지가 꺾였다. /연합뉴스

역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역대 우승팀(1992~1993시즌 이후 기준)

시즌	우승	준우승
1992~1993	마르세유(프랑스)	AC밀란(이탈리아)
1993~1994	AC밀란(이탈리아)	FC바르셀로나(스페인)
1994~1995	아약스(네덜란드)	AC밀란(이탈리아)
1995~1996	유벤투스(이탈리아)	아약스(네덜란드)
1996~1997	도르트문트(독일)	유벤투스(이탈리아)
1997~1998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유벤투스(이탈리아)
1998~199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1999~2000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발렌시아(스페인)
2000~2001	바이에른 뮌헨(독일)	발렌시아(스페인)
2001~2002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레버쿠젠(독일)
2002~2003	AC밀란(이탈리아)	유벤투스(이탈리아)
2003~2004	FC포르투(포르투갈)	AS모나코(프랑스)
2004~2005	리버풀(잉글랜드)	AC밀란(이탈리아)
2005~2006	FC바르셀로나(스페인)	아스널(잉글랜드)
2006~2007	AC밀란(이탈리아)	리버풀(잉글랜드)
2007~2008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첼시(잉글랜드)
2008~2009	FC바르셀로나(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2009~2010	인터밀란(이탈리아)	바이에른 뮌헨(독일)
2010~2011	FC바르셀로나(스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

연합뉴스

메시 3시즌 연속 득점왕

리오넬 메시(24·아르헨티나)가 현역 최고의 '축구 천재'라는 이름값에 걸맞은 눈부신 활약으로 FC바르셀로나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메시는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13경기에서 12골을 몰아치며 3시즌 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메시는 일찌감치 바르셀로나-맨유 맞대결에서 열쇠가 될 것으로 주목받았다.

역시 '메시는 메시'였다. 전반내내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날카로움을 빛낸 메시는 페드로의 선제골과 웨인 루니의 추격 골로 1-1로 팽팽히 맞선 후반 9분에 진가를 드러냈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아크 왼쪽에서 수비수 틈을 비집고 낮게 찔러준 패스를 이어받은 메시는 아크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다 앞을 가로막은 에브라와 비디치를 뚫고 왼발 중거리슛을 때려 골망을 갈랐다.

메시는 후반 24분에도 페널티지역 오른편에서 맨유 수비진들을 몰고다니며 다비드 비야의 추가득점에 도움을 줬다.

바르샤 1천억대 '돈벼락'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 FC바르셀로나가 2010-2011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의 최강자로 등극하면서 '돈 벼락'을 맞게 됐다.

우승상금이 900만 유로(약 138억원)이고, 본선을 치르며 결승에 올라오기까지 차곡차곡 챙긴 '수당'은 2260만 유로(348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계약, 티켓 판매수익 등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우승 상금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승팀인 인터밀란은 4920만 유로(760억원), 준우승팀인 바이에른 뮌헨은 4530만 유로(700억원)를 벌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세계 최고 인기클럽 간의 대결이어서 우승팀이 상금과 배당금을 합쳐 챙기는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열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오른쪽)과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우승 트로피를 고대했던 박지성(30)의 꿈은 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은 2010-2011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9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팀의 1-3 패배를 막지는 못했다.

평생 한 번 오르기도 어렵다는 '꿈의 무대'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최근 4년간 세 번이나 진출했다.

2007-2008시즌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의 라이벌 첼시와 결승에서 만났지만 퍼거슨 감독은 아예 박지성을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해 박지성은 물론 한국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절치부심한 박지성이 두 번째 기회를 잡은 것은 2008-2009시즌이었다. 박지성은 선발로 출격, 후반 21분까지 뛰고 나서 베르바토프와 교체됐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0-2로 무릎을 꿇었다.

2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찾아온 올해 결승전. 박지성은 다시 선발로 출전했다. 한국 팬들은 전반이 1-1로 끝날 때까지만 해도 박지성의 우승 세리머니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은 채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있었다. 그러나 맨유는 후반에 바르셀로나의 메시와 비야에게 연속 골을 내주면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한 박지성의 꿈은 또 한 번 눈앞에서 사라졌다. /연합뉴스

K리그 '클린 캠페인'

광주, 부산과 1-1 … 전남은 울산에 0-1 패배

'승부조작' 파문에 휩싸인 K리그가 클린 캠페인에 나선다.

28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울산 현대의 K리그 12라운드 경기에 앞서 이운재(전남), 곽태휘(울산) 등 양팀 주장과 정해성 전남 감독, 김호곤 울산 감독 등은 그라운드에 서서 '스포츠 불법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부정 방지 선서'를 했다.

대한축구협회와 비리근절대책위원회(가칭)를 상설운영하고, 자정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등 후속 조치에 나선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비리 근절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한편 승부조작 논란 이후 처음 치러진 K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 13분에 나온 울산 강민수의 골에 0-1 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동원을 앞세워 만회골을 노렸지만 울산 수문장 김영광의 선방에 막혀 승부를 뒤집는데 실패했다. 부산원정에 나선 광주 FC는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주앙파울로의 천금같은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 행정, 세무, 검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회복지,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9급 문제풀이 — 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검찰직/ 교정직 —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 검찰직 — 강의시간 : 09:00–19:20 (2개월 완성) —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강!
9급 야간반 — 강의시간 : 19:00–22:00 (3개월 완성) —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종합반
농업직/ 기술직 — 강의시간 :09:00–15:30 (2개월 완성) —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호남 유일 소방직 (전문) —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월 짝/홀수반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252-0252
개강 매월 1일